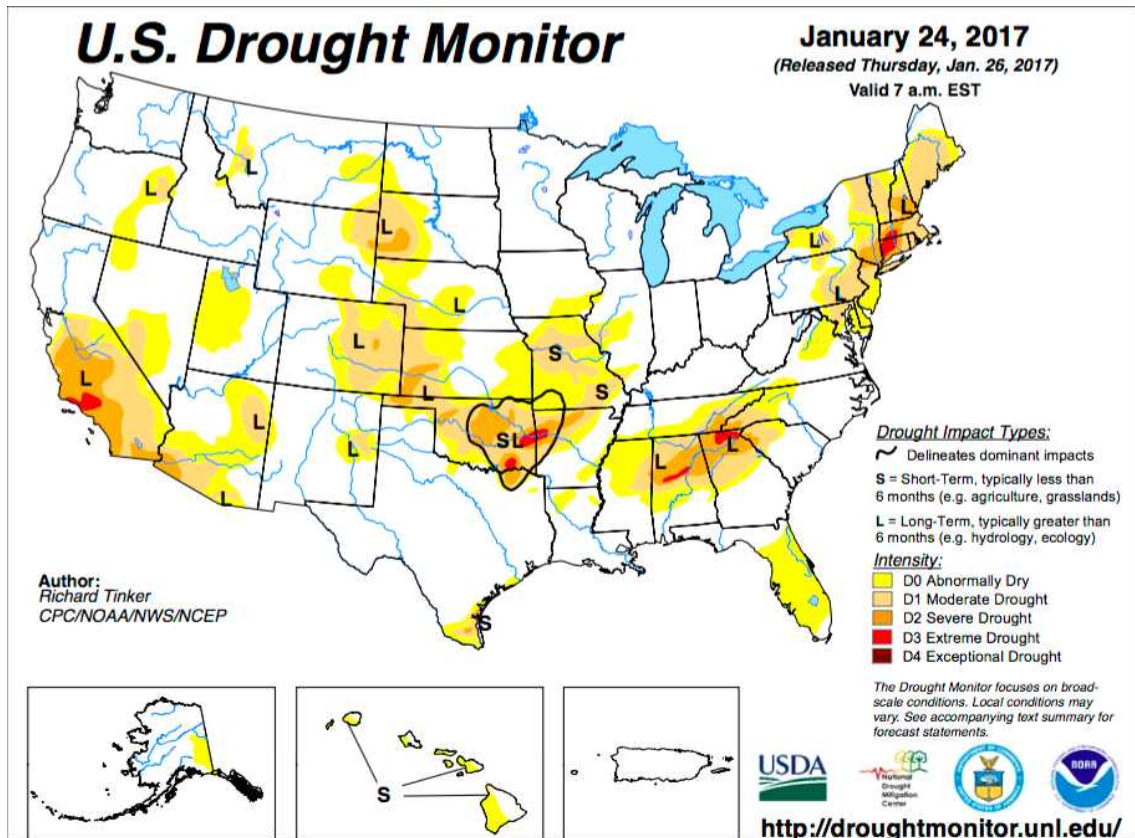


1월 3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5)

□ 미국 기후 현황(1/22~1/28)

캘리포니아 일대에서는 주 초반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몇 차례 발생했다. 1월 22일 조지아 남부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 규모도 매우 컸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남동부에서는 비가 내렸는데, 애팔래치아 산맥 중부 일대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침수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 간 기승을 부리던 가뭄은 점차 해소되고 있다. 내륙 산간지역과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미시간 등에서는 주 중반에 눈이 내렸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서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들이 많았다. 내륙 산간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낮은 곳도 있었다. 반면 중서부와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30°F 이상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1/23~1/29)

로키산맥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고, 특히 뉴 잉글랜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5°F 이상 높았다.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20°F 이상 낮았다. 전국적으로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몇 개 주에서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 □ 세계 기후 현황(1/22~1/28)

■ 유럽: 중부와 북부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낮았고, 특히 독일 남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7°C 이상 낮았다. 독일과 폴란드,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2~20cm 내외의 눈이 쌓이기도 했다. 겨울밀 등은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동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잉글랜드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특히 스페인 북부에서 기상을 부리던 가뭄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에서부터 러시아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10~60cm 내외의 눈이 쌓여 있어 추위로부터 농지를 보호해 주고 있다. 러시아 남부에서도 2~5cm 내외의 눈이 쌓여 있어 영하 11~16°C 내외의 추위로부터 겨울밀을 보호해 주고 있다.

■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주간 기후현황 요약은 2017년 3월부터 포함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5~25c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호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서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에서 40°C 초반까지 오르내렸고, 동부에서는 20°C 후반에서 30°C 중반까지 기온이 오르내리고 있다. 남부와 서부에서는 주 초반에 5~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아르헨티나: La Pampa, Buenos Aires 서부의 옥수수과 대두 재배지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비로 인해 이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최고기온을 회복해 30°C 후반까지 기온이 올랐다. Cordoba 남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Santa Fe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서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기록했고 동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2°C 정도 낮은 날이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률은 1월 26일 기준 각각 96%, 99%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do Sul 북부, Mato Grosso, Goias 등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려 대두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Mato Grosso 주정부에 따르면 1월 27일 기준 이모작 옥수수의 파종률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에 비해 다소 빠른 속도이다. 북동부 내륙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2°C 정도 높았다. Bahia 서부에서도 5~3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Minas Gerais에서부터 Rio Grande do Sul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Sao Paulo에서 재배 중인 사탕수수, 커피 등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